



양토양록농협, 조합장 이취임식 및 총회 개최

- 을 사업계획 확정, 전병설씨는 이사 선출 -



통합 출범된 한국양토양록농협(조합장 : 한규성)이 지난 2월20일 서울 성내동 소재 농협서울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출범 첫 정기총회 및 조합장 이취임식을 실시하고 힘찬 출발을 결의했다.

업계 단체장, 임원, 대의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 한규성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 “양토와 양록이 한배를 탄만큼 합동과 화합, 대화를 통해 합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히고 “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및 지도사업 강화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든 사업은 투명한 운영을 원칙으로 실시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에 앞서 양록농협 전병설 전 조합장

은 이임사를 통해 “그 동안 믿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”며 “새로운 출발을 하는 양토양록조합이 합병조합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

이날 행사에서 전병설 전 조합장은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를 증정 받는 한편 농협이 통합됨에 따른 1명의 증원이사에 선출됐다. 전병설 이사까지 양토양록조합의 이사는 총 8명이다.

이취임식에 이어 열린 2003년 정기총회에서는 △ 통합임원 소개 △ 2002년도 결산 감사보고 △ 규정 및 정관개정 등 의안심의 △ 2003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(안) 등을 승인했다. **한국양록**